

새정부, 감염인의 인권보장 강조



김명훈
서브란스병원 사회사업
팀장

고사성어 남상(濫觴)이란 겨우 술잔에 넘칠 정도로 적은 물이란 뜻으로 사물의 시초나 근원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공자가 성질이 용맹하고 행동이 거친 닷에 유별났던 제자 자로(子路)에게 말한 한 대목의 은유에서 유래하고 있다. “양자

강(揚子江; 長江)의 근원은 겨우 술잔에 넘칠 정도로 적은 양의 물이었다.

그것이 하류로 내려오면 물의 양도 많아지고 흐름도 빨라져서 배를 타지 않고는 강을 건널 수가 없고, 바람이라도 부는 날에는 배조차 띄울 수 없게 된다. 이는 모두 물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니라.” 공자는 자로에게 매사는 시초가 중요하며 시초가 나쁘면 갈수록 더 심해 진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장력과 중력에 의해 움직이는 진자운동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계추가 시발에선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그 동작이 미세하지만 종단에는 그 움직임의 폭이 커지는 것도 유사한 시사점이 있다.

바이킹이라는 놀이기구가 있다. 배 모양으로 생겨서 포물선을 그리며 진자 운동을 하는 바이킹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순간 배에 탄 사람은 속도의 변화 즉 가속도를 느끼면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쾌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배가 정상에서 떨어질 때 사람은 자신을 받치고 있는 배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불안해하고 간이 위

로 올라붙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낙하할 때는 무거운 배와 가벼운 사람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느끼지 못하는 물리학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 대선 후보들은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 감염인 및 환자에게 대해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 치료 및 관리체계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1) 변 정부차원에서 에이즈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 2) 본 협회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통합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3)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겠다, 4) 국내체류 외국인 환자 관리방법을 합리화하여 외국인 감염인들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5) 에이즈 전문진료기관체계를 전면 재구축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에이즈환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에이즈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등의 에이즈 관련 정책대안을 피력하였다.

매우 이상적인 정책대안으로 추후 법안, 재정지원, 관리 및 진료 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에이즈는 이제 감염인 수가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맞먹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공자가 장강에 비유한 것과 같이 감염인의 인구가 증가하여 감염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경제수위를 넘어선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자의 정점인 대통령의 정책대안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